

# 한국의 기후행동 성적표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100점 만점에 26.4점. 2024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다.

67개국 가운데 63위, 꼴찌에서 5번째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4위를 한 덴마크는 78.4점이다. 작년에 한국은 64위였고 덴마크는 4위였다. 한국보다 못한 국가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석유 팔아먹는데 혈안이 된 산유국들이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산유국들 틈에 끼어 있다. 지금까지 성적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는 꼴찌그룹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달 20일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9)가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독일의 민간 평가기관 저먼워치(German Watch)가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와 함께 '2025년 기후변화수행지수(Climatic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

저먼워치는 매년 이맘때 개최되는 기후총회에서 CCPI를 발표해 오고 있다. 평가대상 국가는 세계 9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유럽연합을 포함 64개국이다.

저먼워치는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이용, 기후정책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 지구촌의 최대 난제인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4개 영역 모두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2030년 40%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재생에너지 도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이고 화석에너지 금융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미진하고 2030년 이후 감축 계획마저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도 연간 13톤 내외로 세계 평균 7톤보다 훨씬 많다. 유럽연합 평균 8톤보다 높고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다. 그만큼 고탄소 사회경제적 구조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적표는 국제사회가 세계경제 10위권인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언론 등은 CCPI 꼴찌그룹을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며 불렀다. 기후 환경보다 돈만, 경제만 앞세운다는 의미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총체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 탈탄소의 경

제사회구조, 재생에너지 획기적 도입,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를 가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많다. 상위 랭커 국가들이 그들이다.

유엔 보고서, '2024 온실가스 배출 격차(Emissions Gap Report 2024)'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 세계가 현재와 같은 기후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대비 3.1도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합의했던 1.5도 목표를 대폭 초과한다.

그리되면 지구촌의 대재앙은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30년 최소한 42% 온실가스 감축을 2035년까지 57% 감축을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에 갈 수 있다. 2035년까지 매년 7~8% 감축실적을 내야 한다. 유엔은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한국을 포함 세계 모든 국가는 업그레이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국제적 권고를 수용,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실천해야 한다. 연간 7~8% 감축실적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 변화가 있다면 점수에 반영된다. 내년 이맘때 성적표를 받았을 때, 환한 얼굴로 탈꼴찌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社說

# 지역문제 해결위한 기부문화 확산되길

##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 제막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무안 삼향읍 전남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3일에는 여수시청에서 동부권 제막식이 열린다. '기부로 나를 가지치게, 기부로 세상을 가지치게'라는 올해 나눔 캠페인의 구호처럼 가지치는 세상을 위한 사·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2000만원, 전남 113억9만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은 1%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간다. 모금 첫날인 2일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가 2억2900만원, 광주은행이 1억2000만원,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 4016만원을 기부했고 지혜숲어린이집 원아들은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하며 캠페인 출범에 힘을 실었다. 전남에서도 전남도의회 1130만원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전남본부

3000만원, 전남개발공사가 3억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4대 지원분야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에 쓰여진다. 약물이나 온라인 도박 등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지원하는 '신사회문제대응지원'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지원'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며 돌봄 부담을 낮추는 '지역사회돌봄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는 '교육·자립역량강화지원'도 기회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부족하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있다. 당장 지난 2015년 5228억원이던 모금액은 지난해 83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의 기부액도 1790억원에서 2436억원으로 증가했다. 많고 적은 의미는 없다. 꼭 물질로만 베푸는 것도 아니다. 가치있는 세상을 위해 이번 캠페인 기간 나부터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자.

# 광주형일자리 청년 취업 선호기업 돼야

## GGM 이직률 급감·수출 호조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 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우여곡절을 딛고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캐스퍼 전기차 양산 이후 직원 이직률 감소와 수출호재까지 겹치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1일 GGM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620명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직한 인원은 36명(5.8%)이다. 특히 전기차 양산된 7월 이후 이직한 인원은 10명(1.6%)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 이직률 10%에 대비해서도 절반 정도이며, 지난해 GGM 이직률 7.4%(46명)와 비교해서는 1.6%p가 감소했다. 이처럼 GGM의 이직률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올해 7월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생산대수가 14%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증가해 직원들의 급여가 평균 18% 많아져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아가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캐스퍼 전기차는 올해 전기차 케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3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5000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GGM의 일감이 크게 늘어 직원들이 예전에 없던 토요일 특근까지 하면서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비 인상과 각종 복리후생 확대 등의 각종 사회적 임금이 크게 개선된 것도 한몫했다.

GGM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 이전 생산물량 감소와 더딘 사회적 임금 지원은 직원들의 불만만 키웠다. 결국 GGM노조 설립 등으로 광주형 일자리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GGM이 최근 안정화되면서 과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전 이런 염려는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역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GGM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가고싶은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각) 조지아 트빌리시의 의회 건물 밖에서 시위대가 조지아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들고 있다. 시위대는 친러 여당 '조지아의 꿈' 소속인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가 2028년까지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는 결정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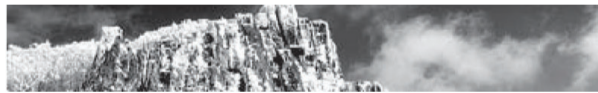
## 서석대

'인자무적(仁者無敵)'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사자성어는 주로 공자와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따라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추구하며, 결국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인자무적'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으로도 여겨진다. 리더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은 더욱 단합되고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며 따르게 된다. 이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준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어진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한다. 따라서 '인자무적'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서,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인자무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을 꼽을 수 있다. 이 감독은 지



난 2월 전임 감독의 불미스런 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 11대 타이거즈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올시즌 감독 데뷔 첫 해에 투타에서 부상자가 끊이지 않았지만 무리하지 않는 합리적인 운영과 베테랑 감독들에게 뒤지지 않는 경기운영능력 등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KIA의 KBO리그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특유의 '형님 리더십'을 선보이며 KIA를 강팀으로 성장시켰고,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 성과를 이뤄냈다. KIA 구단은 이 감독의 지휘력을 높이 사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3년 총액 26억원 재계약을 안겼다.

이 감독의 재계약 소식에 KIA 선수들은 일제히 반겼다. 특히 투수 광도규는 "너무 행복하다. KIA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 정도다.

광도규 등 KIA 선수들이 이 감독의 재계약에 기뻐하는 건 '이범호 리더십'에 매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는 관계를 형성한 이 감독의 '어진 리더십'이 선수들에게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였고, 팀의 통합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감독 처럼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인(仁)을 실천하길 기대해본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